

군산시, 인구정책 '순항'

일자리 등 5개 분야 16개 부서 59개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예산대비 집행률 평균 68%... 하반기 성공적인 진행 기대

군산시가 하반기 동안 성공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점추진 사업을 점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 인구정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산시 인구정책 상반기 중점추진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하반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산시 인구정책 중점추진사업은 결혼·임신·출산분야, 양육·보육분야, 노인복지분야, 일자리 분야, 정주여건

개선분야의 총 5개 분야로 16개 부서, 59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항목은 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을 토대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부서별문을 통한 면담 및 서면을 통한 상반기 추진현황을 파악했으며, 각 부서의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급우계획,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진행됐다.

상반기 추진현황 점검 결과 코로나 19의 장기 여파로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59개 사업추진 예산대비 집행률이 평균 68%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19로 대면 활동 등의 제약이 있어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책자, 진단지 등을 배부하고 언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부서별로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과 고대성 과장은 "상반기 코로나 19의 장기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부서별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이 계획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익산소방서 "방범·화재 예방 일석이조의 효과"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청소년의 우범자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닫아둔 옥상 출입문을 화재 발생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방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방범과 피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화재 안전 시각장애에 놓여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익산지역 199개의 주택단지 중 소방시설 연동되어 설치된 곳이 50개, 관리사무소 원격조작 2, 출입문 직근 열쇠보관 51, 각 세대 열

쇠보관 2, 번호키(카드)개방 8, 상시개방 39건 등으로 조사되어 설치률이 25.1%에 그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익산지역 공동주택 2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배부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 ▲현지역 응·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옥상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돕고 설치를 권장한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평소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열려 대피를 도울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과 화재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

고용안정일자리센터·LH 아파트, 일자리창출 협약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발굴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7일 장신휴먼시아·2·3단지, 배산휴먼시아 4·5단지, LH인화행복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가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취업상담과 정기적인 구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취업활성

화를 위한 구직자 발굴 △입주민의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한 홍보 지원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식품, 자동차, 홀로그램, 고용서비스 등 4개 분야에 5년간 총 4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부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일자리센터는 기존 상담위주의 취업상담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등 산업별 고용플랫폼을 구축해 구직자와 기업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순 일자리정책과장(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및 인력채용,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입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여 함께 일하는 일자리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사례관리 순회교육

군산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2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부서 공무원의 사례관리 순회교육을 8월 한 달간 실시한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읍면동 맞춤형복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및 상담기법이며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강사로 나서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까지 전달한다.



군산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2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부서 공무원의 사례관리 순회교육을 8월 한 달간 실시한다.

정현을 익산 시장 "농촌경제 살리자"

여산 수은마을 멜론 농가 방문 유튜브 농산물 홍보 직접 참여

정현을 시장이 역대 최대 판매액을 돌파한 익산 마을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농촌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7일 전자상거래 입점 농가인 여산면 수은마을 멜론 농가를 방문해 유튜브 촬영 현장을 살펴보고 직접 농산물 홍보에 참여했다.

이날 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농가 방문해 정 시장과 체험휴양마을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멜론 빙수 만들기 체험을 하며 지역 농산물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인기 유튜브들과 연계해

지역 농가의 우수한 작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생활 환경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 맞춤형 홍보 정책에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 중인 마을전자상거래는 상반기 판매액 17억원을 돌파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참여 농가를 신규 발굴하여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이계심 강사 초청강의

군산시가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도시라는 비전으로 명사초청 시민대상 강연프로그램인 '군산새만금아카데미' 4강좌를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오는 11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생천 이영춘 박사의 막내딸인 이계심 강사를 초청해 '군산 생천 이영춘, 한국의 슈바이처'란 주제로 농촌은 민족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일생을 농촌보전, 예방의학의 선구적 활동한 이영춘 박사의 업적과 신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펼쳐 예정이다.

이계심 강사는 몽골에서 20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울란바타르 초·중·고를 설립 후 교장을 역임하였고, 몽골 문교부 장관 표창장, 몽골교육최고위인 칭호 훈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울란바타르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이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원광대병원, 건강 강좌

지난 6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관하) 권역성뇌혈관질환센터가 심·뇌혈관 질환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 강좌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 아래 14시부터 교수연극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과 이학승 교수의 강의로 열린 이 건강 강좌는 행정, 간호, 간호, 자원 인력 간호 업무 등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병원 업무에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것이다.

이번 건강 강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예방과 뇌졸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뤘는데 평소 갖고 있는 의문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불의에 생길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등은 예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린 건강 강좌여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